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449

JCCT 2023-1-54

상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Career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mmercial High School Students

구혜경*

Goo Hye Kyoung*

요약 이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들 중에서 경기 및 충청지역 상업계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업교육에서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수록 진로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상업계 고등학교, 상업 교육,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and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third-year students from Commercial High School in Gyenggi and Chungchenog regions were selected as the study subject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career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career adapt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lower the career stress. Second, the lower the career stress, the higher th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there was no direct effect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Commercial Educa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1. 서론

진로는 신체적 발달, 정신적 발달과 함께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능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생이 끝날 때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1].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진로 선택은 성인기와 같은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2].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상급학교

*정회원,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December 30,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goohk@hanmail.ne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won Univ, Korea

로의 진학이나 직업 선택의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시기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진로구성이나 직업 선택 등에 대해 갖는 개인의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실업율이나 취업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돕고 적합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충분한 진로탐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등학생들의 상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취업시장의 불안이 심화되어 더욱 취업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은 높은 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을 겪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생은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과 같은 진로문제에 직면하여 진학과 취업의 진로선택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확대시켜 심리적 및 신체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우울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학교생활과 학업, 진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적 심리상태라고 보았다. 진로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다. 동일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심하게 좌절되고, 극복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행동과 양상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를 발판 삼아 주어진 상황에서 극복하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마다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의 자세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4].

자신의 적성보다는 성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시기에 자아실현이나 삶의 즐거움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5]. 심리적 안녕감은 그 자체만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긍정적 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잘 관리할 경우에는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요한 정서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업계 고등학생들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으로 대학입시나 내신등급 등에 대한 학업이나 특성화고 학생들만 겪게 되는 취업에 대한 고민과 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상업계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진로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감소시킬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진로스트레스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성인 특히, 직장인들에게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진로적응성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긍정적 발달과 진로준비를 촉진하며,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이루게 한다[6].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서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기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여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생활패턴의 변화, 입시 및 진로결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청소년기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업성취[8], 교우관계[9]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계에서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삶의 질, 자기효능감,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 목표달성, 낙관성 등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 심리적 안녕감과 부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 또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진로적응성은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용어로, 진로적응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구성하고 책임있게 만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적 개념인 진로구성주의에 해당한다[11]. 직무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등의 예측가능한 일뿐 아니라 직업환경과 직무조건의 변화로 유발되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12]을 의미한다. 진로적응성은 주로 성인의 진로발달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도입되어, 진로적응성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13-14][6].

한 개인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인 대처준비도를 나타내는 진로적응성은 상담을 통해 제고될 수 있으며, 외부적 상황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에 대해 호기심, 주도성, 관심 치 적극적 관여를 하게 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15]. 진로적응성은 성공적인 진로전환이 가능하게 하며, 직무스트레스, 진로 불안과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5]. 계속되는 경제 불황이나 코로나로 인한 취업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과 같은 자신의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상업계고 학생들은 상당한 진로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취업준비와 진로탐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진로스트레스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취업선택과

관련된 문제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신체적 및 심리적 평형상태가 무너지고 불안 및 긴장감 등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주관적 스트레스이다[18].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는 자아인식 및 탐색, 진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낮출 수 있다[19].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로써, 삶에 대한 만족을 판단하는 정서적 평가를 의미한다[20].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을 만족시키는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 성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21]. 주관적 안녕감이란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과 정서적으로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정서 반응이다. 진로에 관련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미래 진로에 대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낮아져 삶의 만족을 가져온다[22].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갈등, 학업 및 또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은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킨다[23].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속화되는 취업난 속에서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제고시키기 위해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지각된 진로적응성이 진로스트레스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2. 측정

진로적응성은 진로적응성척도(Career Adaptabilities Scale)를 사용하였다[24]. 진로적응성척도는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총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관심은 진로 관련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진로통제는 진로 관련 미래

준비를 위해 통제하는 것, 진로호기심은 직업과 관련하여 미래 자신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끼고, 진로자신감은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스트레스는 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생활에서 심리적,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파괴되고, 위기를 느끼거나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보았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보호성, 취업압박, 진로정보부족, 내외적 갈등 등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2008)가 한국 상황에 맞추어 타당화한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는 정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4개 문항만을 사용하여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충청지역과 경기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응답들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91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상업계 고등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50명(17.1%), 여학생 242명(82.9%)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분석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eigenvalue 1 이상,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계수(Cronbach's α)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들은 심리적 안녕감 4.514, 진로스트레스 3.004, 진로적응성은 1.658의 아이젠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개념들은 모두 신뢰성계수가 0.7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및 타당성의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각각의 개별요인의 단일차원성 검증 실시하여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의 측정항목들이 단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의 개념은 고차수준의 구성개념(higher-order factor construct)으로 first-order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잠재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들을 모두 통합한 관점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단일차원성 검증을 통해 확인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CFA)결과, AVE와 개념신뢰도(CR)의 값이 집중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에 이용되는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값과 개념들의 \sqrt{AVE} 값을 비교하여 높은 판별타당성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결과, 연구모형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Table 1. Constructs Validation and Reliability for analysis

개념		요인적재값	신뢰성계수	CR	AVE
진로적응성	진로관심	.839	.880	.951	.792
	진로통제	.787			
	진로호기심	.840			
	진로자신감	.868			
진로스트레스	진로보호성	.866	.879	.957	.822
	취업압박	.883			
	진로정보부족	.800			
	내외적 갈등	.767			
심리적 안녕	계획대로 이행	.940	.916	.960	.812
	친구와의 관계	.911			
	더 나은 사람	.879			
	표현의 자신감	.833			

표 2. 상관관계 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sqrt{AVE}	적응성	스트레스	안녕감
진로적응성	.890			
진로스트레스	.907	-.502*		
심리적 안녕감	.901	.063	-.167*	

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148.005$, $df=51$, $p=.000$, $\chi^2/df=2.902$, $GFI=.923$, $AGFI=.882$, $CFI=.959$, $NFI=.939$, $TLI=.947$,

RMSEA=.081, RMR=.106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합도지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gamma = -.478(t = -7.959)$ 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Mediated Analysis

경로	경로계수	St. 경로계수	S.E.	t	p
진로적응성 → 진로스트레스	-.478	-.502	.060	-7.959	.000**
진로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173	-.181	.071	-2.450	.014**
진로적응성 → 심리적 안녕감	.026	.028	.069	.373	.710

모형적합도 : $\chi^2 = 148.005, df = 51, p = .000, \chi^2/df = 2.902, GFI = .923, AGFI = .882, NFI = .939, CFI = .959, TLI = .947, RMR = .106, RMSEA = .081$

주) ** $p < .05$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로계수는 $\beta = -.173(t = -2.450)$ 으로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gamma = .026(t = .373)$ 으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은 상업계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는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여 추구해 나갈 것인가는 진로 그 자체에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 또는 심리적 안녕감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겪는 위협, 역경, 부정적 생활 사건이 개인의 적응을 위협하고 심각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적응성[26]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만족 또는 행복감 등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에 대한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과 같은 자신감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이 함께 연계될 필요성을 밝힐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만족 또는 심리적 안녕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적응성에 관한 진로지도 및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만족 또는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교육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이나 상담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포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진로발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구조적 관계만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를 낮추어 고등학생이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진로적응성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상업계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R. Lee, S. M. Kim, M. S. Cheun, and S. K. Choi,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4, pp. 59-80, 2008.
- [2] D. A. Luzzo, "Value of Career-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 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0, pp. 194-199, 1993.
- [3] J. S. Choi, and H. W. Chung,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School Life-Satisfaction, Stress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4, pp. 921-933, 2021.
- [4]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o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5] S. H. Do and D. B. Ju, "The Impact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Career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elf-Encouragement,"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Vol. 9, No. 4, pp.49-69, 2022.
- [6] K. Y. Jang and B. W. Kim,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2, pp. 539-558, 2011.
- [7] H. J. Jeon and H. W. Chung,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 The Mediation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to School Life Adapt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7, No. 2, pp. 215-242, 2016.
- [8] E. S. Seo, and J. S. Ko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ened Happiness Scale (COMOSWB),"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ociety and Personality*, Vol. 25, No. 1, pp. 96-114, 2011.
- [9] M. S. Kim, H. W. Kim, G. H. Cha, J. Y. Lim, and Y. S. Han, "Exploring the Components of a Happy Life for Korean Adults and Developing Measure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Vol. 8, No. 2, pp. 415-442, 2003.
- [10] B. W. Kim, "A Study on Adolescents' Life Changes and Subjective Happiness resulted from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4, pp.75-82, 2022.
- [11] M. L. Savickas,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Brown, S. D.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42-70, Hoboken, NJ: John Wiley &, 2005.
- [12] J. W. Yook and B. W.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Job-Seeking Anxiety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8, No. 3, pp. 111-128, 2017.
- [13] S. J. Ashford and M. S. Taylor, "Adaptation to Work Transitions : an Integrative Approach," In G. R. Ferris, and K. M. Rowland (Ed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Vol. 8, pp. 1-39, Greenwich, CT: JAI Press, 1990.
- [14] E. K. Pulakos, S. Arad, M. A. Donoval, and K. E. Plamondon, "Adaptability on the workplac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Adaptive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5, No. 4, pp. 612-624, 2000.
- [15] Duffy, R. D., D. L. Blustein, M. A. Diemer, and K. J. Autin,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63, No. 2, pp. 127-148, 2016.
- [16] Rossier, J., G. Zecca, S. D. Stauffer, C. Maggiori, and J. P. Dauwalder, "Career Adaptabilities Scale in a French-speaking Swiss Sample :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ity and Work Eng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0, No. 3, pp. 734-743,

- 2012.
- [17]C. Johnston., C. Luciano Eva. C. Maggiori, W. Ruch, and J. Rossier, “Validation of the German version of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and its Relation to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Work Str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3, pp. 295–304, 2013.
- [18]M. J. Kim and J. Uhm,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diation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5, pp. 259–273, 2022.
- [19]J. C. Brunstein,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5, pp. 1061–1070, 1993.
- [20]E. Diener,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1, pp.103–157, 1994. <https://doi.org/10.1007/BF01207052>
- [21]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f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y*, Vol. 57, No. 6, pp. 1069–1081, 1989.
- [22]K. A. Jang and J. Y. Lee,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 betwee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Variabl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 Application of Integrated Social Cognitive Career Mode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6, No. 4, pp. 1023–1046, 2014.
- [23]Y. Pigaiani, L. Zocante, A. Zocca, A. Arzenton, M. Menegolli, S. Fadel, M. Ruggeri, and M. Colizzi, “Adolescent Life-style Behaviors, Coping Strategies and Subjective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Online Student Survey,” *Healthcare*, Vol. 8, No. 4, 472–484, 2020.
- [24]Savickas, M. L. and E. J. Porfeli, “Career Adaptabilities Scale USA Form :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0, No. 3, pp. 748–753, 2012.
- [25]H. J. Lee, M. N. Lee and I. S. Choe, “ Validation of a Well-Being Scale of Adolescen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2, No. 1, pp. 301–315, 2008.
- [26]S. M. Kim, E. Y. Son, and S. H. Lee, “Domestic Career Adaptability Research Trend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0, pp. 113–126, 2021.